



제 648 호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새만금 내부 개발 재검토’…해수 유통 논란 재점화 되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해수 유통 논란이 재점화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결정이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 주기적 간접”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논란의 여파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기본계획을 새롭게 짜는 과정에서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수 유통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 환경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전북 둑 지키기 차원에서 원칙 없이 추진된 새만금 간척지 개발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방향성은 물론 경제성이 없는 새만금사업에서 해수 유통, 수질 개선, 수산업 회복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북 둑 지키기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합리적인 지적이 전북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공

격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부가 새로 짜는 기본계획 용역에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을 중점 사항으로 넣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염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민·관 공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 새만금 내·외측 수산업 회복, 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매립과 준설에만 집착했던 새만금 사업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특정 공기업, 토건 업체의 배만 불려준 새만금 사업에서 벗어나 해수 유통량을 늘리고 갯벌을 보존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이 새만금에 대한 진지한 분석 및 평가에서 비롯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 정부 기본계획(MP) 새로 짜는 과정서 해수유통 부각될 수밖에 환경단체 벌써부터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해야” 목소리 높여

립 면적 축소 등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9년 당시 유종운 전북도지사는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 영향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목표 수질을 설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낡은 토건 사업은 새만금의 분명한 한계”라며 “이제라도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역시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은 “진즉 해야 했을 일”이라며 갯벌 보존의 방향으로 사업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새만금을 SOC로 훈드는 정치 공세는 방어적인 태도일뿐더러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를 가로막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빅 픽처’라는 말에서 보듯, (새만금은) 전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론몰이에 의한 전북 둑 지키기와 보복성 예산 삭감 등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파행 이후 나온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에 이어 환경단체의 해수 유통 주장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어서 전북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송진영 기자

## 김현숙 “스카우트대원·국민께 진심 사과”…잼버리 사태 첫 사과

“책임론, 감사원 감사 지켜봐야…여야 합의하면 여가위 출석”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작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악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키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 조성은 기자

## ‘LH 전관업체’ 수천억대 입찰담합 정황…11곳 압수수색

순번 돌려가며 감리용역 따내…검찰 “국가 세금 투입, 사안 중대”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낸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업체 간 짐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 신고를 통해 2조3천억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장희성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 잘나가는 투자전략 주시고요  
‘반도체는 더블로 주세요’”

바이오
AI
2차전지
우주항공산업
반도체

ETF, 그 다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내 맘대로 넣고 빼고! 스마트한 주식 투자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국내외 금융상품 제20-02853호(2023.08.03 ~ 2024.08.02)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기회 변동, 환율 변동, 시장 등급 하락 등이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거래액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자문 보수 외에 자문 결합 계약 내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세금 기타 거래 관련 비용 등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기

# 尹대통령 “민간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하고 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해외 진출 전용 펀드’ 등 지원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내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과 추진 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

동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 스타

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며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벤처를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팀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창업 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송원기 기자



유엔 평화적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청원 기자회견

## 10여개 시민사회단체

“집회 자유 후퇴…유엔에 긴급 청원”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내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했다.

다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유엔 평화적집회및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날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확대 적용,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 방침, 캡사이신·살수차 등 장비 재도입 시도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이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

문해 정부 부처와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찾아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하는 한

편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구할 예

정이다.

/ 권정호 기자

## 野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원희룡 “노무현 탄핵도 기각”

국토위 전체회의서 최근 ‘총선 발언’ 두고 공방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거나”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

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결산 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할 위치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현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같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지 선언은) 길 가는 사람을 불잡고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란 것”이라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질

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중립의 의무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설전은 잣아들었다.

/ 심현오 기자

## 전화 달라는 우편물, 사기일 수 있어요…경찰,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0일 가짜 우편물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에는 다양한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북 경주 일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가짜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조직들이 오히려 전통적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황윤수 기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 ‘양평고속道 재개’ 촉구 양평군민 6만명 서명지 국회 제출

원희룡 국토장관 “정쟁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 재개”



경기 양평군 주민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군민 6만여명의 서명지와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경기 양평군 주민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명의 서명지와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염원하는 범대위를 발족한 지난달 10일부터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운동을 벌여 전체 군민 12만 5천여명의 절반가량인 6만1천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건의문에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 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 나들목(IJC)이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영·장명우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군민 8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관련 기관에 서명부 등을 전달했다.

요청서를 받은 원 장관은 “고속도로와 상관없는 정치집단이 억지로 의혹을 만들 어가는 정쟁을 중단시키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바라는 가장 이로운 노선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싸움이 불면 빠바로 가던 고속도로 비틀어진다”며 “정쟁만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 임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개 식용 종식’ 회견장 찾아 “끝까지 노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선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김 여사의 등장과 발언에 박수로 환영했다.

김 여사의 발언이 끝나고 회견 참석자가 김 여사의 손등에 강아지 그림을 그려줬다. 김 여사는 이후 15분간 회견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회견이 끝나가던 오전 11시 26분께 회견장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악수하며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을 반드시 이번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한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 문용성 기자

## 한총리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용어변경 검토”

“오염수가 방류되는 게 아냐…IMF 사태라 부르는 것과 유사”

한총리는 3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용어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를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 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아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 후에 수십년간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며 “(외환위기는) IMF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오히려 IMF가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오염수 처리수’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 니다만 지금은 혼재돼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분명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오염수 용어 사용과) 유사한 것 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염수 용어를 ‘IMF 사태’ 표현에 빗대기도 했다.

한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가 나서 IMF(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 후에 수십년간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며 “(외환위기는) IMF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오히려 IMF가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IMF 사태라고 부르는 것은 (오염수 용어 사용과) 유사한 것 아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니냐고 생각한다”며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강조했다.

/ 송유영 기자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수능 100%’ 정시서도 감점 생길 듯…대학별 시행계획 내년 4월 발표



논술을 앞두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 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올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다면,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함께 배포한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약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시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청탁이 진행 중이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또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비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상 보호 청탁,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방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 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박동훈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Cool하게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미타임 적용]

(서미타임 미적용 시: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준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하므로 주로 국가 원화인 수수료 : 미국 0.2%, 중국 0.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 예결위, 국방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장관 런” VS “과한 표현”

野 “당당하면 국민 앞에 보고하라”, 與 “불가피한 사정…조롱은 안 좋아”

여야는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했다.

야당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홍범도 흉상 이전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답을 피하고자 고의로 출석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 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독립지사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로 광복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훼손한 분이 이 장관”이

라며 “당당하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 장관이 공무를 위해 폴란드 출장을 떠난 만큼, 이 같은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 김효영 기자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 새만금 예산 관련 기자회견

## 野 전북 의원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보복성 예산 편성”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국가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돼 반영

##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 탓 돌리는 후안무치 행태…원상복구 해야”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엔 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고작 22%만 반영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재중 탈북민의 강제 복송 우려에 대해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 계획상 20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재정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재정화시키려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호 기자

## 나경원 “정부 주거안정 대책 환영…내 제안 검토하면 도움될 것”

“원금 부담 낮춰주는 ‘나경원표 형가리식 제도’, 주거안정 위한 것”



같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은 부부합계 소득 3천만원까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1%대 이자로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형가리식 초저리 주택장기대출 제도는 둘ly 결혼하겠다면 소득 수준 상관없이 2억원을 1%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숫자에 따른 이자 탕감 및 단계적 원금 탕감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정부안은 초기 소요 예산이 내 제안보다 높으나, 대출 상환 시기인 20년 후부터는 내 제안의 예산 투입 액수가 증가한다”며 “(형가리식 제도의) 러프한(개략적인) 추계에 따르면 연 12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년 후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2조원 예산은 재정이 감내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출산아 수에 따라 이를 조금씩 낮춰주는 것을 넘어 일정 액수에 한해 나의 제안처럼 이자와 원금 부담을 조금 더 과감하게 낮춰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지호 기자

## 민주, 강서구청장 후보 문홍선·정춘생·진교훈 3명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민 교수는 강서구 부구청장을 지냈고, 정 전 비서관은 민주당 중앙당 공보국장 등을 지낸 당료 출신이다.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3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홍선 서경대 초빙교수,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으로 후보를 추린 뒤 추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차례 회의를 열었고, 공천을 신청한 총 14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서류면접과 지역실사 등 다각도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10월 11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일정은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석준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잊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장 고발한 해병대 前수사단장 내달 조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다음 달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

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고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향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 김종호 기자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단속, 신체 촬영 중단 촉구'

## 특수교사 변호인 “주호민 측 ‘유죄 선고’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웹툰작가 주호민

선처 탄원 의사를 밝힌 지 20여일 만에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주씨는 지난 달 26일, 이달 2일과 7일 유튜브와 인스타 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글을 올린 이후 현재 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9)에게 “진짜 밀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달 언론보도로 알려져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씨는 지난 입장문에서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하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도 같은 말을 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이달 2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민형 기자



## 국세청 “민원인 폭행에 법적 조치”

### 직원보호 대책 마련…민원실에 CCTV 설치 확대

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민원 업무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화성 세무서 민원 응대 직원 실신·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동화성세무서 고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달 24일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한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실신해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은 민원봉사실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원인 이용 공간과 직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 문과 투명 가림막도 보강·설치한다.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세무서 방호인력이 민원 봉사실을 순회

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관련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 보호하되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사후 조치·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민원 응대 세무서에서 언성을 높이던 한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실신해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 전담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률비용, 의료비,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에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 오창수 기자

##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연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정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연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 촬영당해” 국가 상대 소송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연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정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연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침해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배성윤 기자

- **KOMIR 탄소중립**
  - 탄소흡입 산림조성
  - 광산 탄소저감시설 지원
- **KOMIR 동반성장**
  - 중소광산 기술고용지원 및 성과공유
- **KOMIR Safety**
  - 광산안전컨설팅
  - 안전시설지원
- **KOMIR 뉴딜**
  - 산림자원 등 활용 도시재생 사업

# KOMIR, 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품다

“충북 광천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준공지”

**한국광해광업공단**

# 美상무 “中 위험해 美기업들 투자 불가”…中 “높은 수준 개방중”

“中 ‘수출통제 축소·투자제한 철회’ 요구에 NO라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risky)해서 투자가 불가능하다(uninvestable)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이 29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그 이유로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별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침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며



나란히 선 중국 부총리와 미국 상무장관

달했다.

또 중국 측에 인텔, 마이크론, 보잉 등 미국 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변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 말을 들은 것 같으

“나는 물론 ‘노(No)’라고 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차관보급 ‘수출통제 시행 정보 교환’

했다.

이밖에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보조금으로 레거시(구형 공정) 반도체나 철강, 알루미늄 등의 과잉 생산을 창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거시 반도체 과잉과 관련해서는 수출통제가 아닌 다른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당국은 즉각 대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중국대사관 류평위 대변인은 이날 러몬도 장관의 언급에 대한 논평 요구를 받자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에서 영업 중인 거의 7만여개의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길 원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90%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건전한 법적 토대 속에서

관리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외부 세계에 대한 문을 더욱 넓게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 임성호 기자



해리포터도 누른 바비…워너브러더스

100년 사상 최고 흥행

영화 ‘바비’의 매출액이 수직 상승하면

서 올해로 창립 100년을 맞은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의 역대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비는 지난달 21일 개봉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박스오피스 기준 13억 4천240만 1천 달러(약 1조7천730억원)를 벌어들었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작품 중 종전까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2011년 작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의 13억4천235만9천942달러(약 1조7천729억원)를 뛰어넘은 것이다.

바비는 미국에서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다크 나이트’(2008·5억3천499만 달러)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2023·5억7천400만 달러) 등 역대 흥행작이 세운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바비를 연출한 그레타 거윅 감독은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 전 세계 총매출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클럽에 가입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워너브러더스 산하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 픽처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CEO) 마이클 드 루카와 파멜라 아브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의 역대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비는 지난달 21일 개봉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박스오피스 기준 13억 4천240만 1천 달러(약 1조7천730억원)를 벌어들었다. 이는 워너브러더스 작품 중 종전까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2011년 작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의 13억4천235만9천942달러(약 1조7천729억원)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르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올해 초 개봉작인 만큼 바비에 밀린 것이 확실하지만, 첫 개봉 후 1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나 다크 나이트는 이 기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지적했다.

/ 고연우 기자

## 러, ‘프리고진 항공기 사고 국제 공동조사’ 브라질 요구 거절

백악관 대변인 “러, 정직 살해해온 오랜 역사 있어” 배후설 암시



프리고진 전용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옮기는 인부들

러시아 정부가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숨진 비행기 사고를 외국 기관과 공동 조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항공사고 예방·조사센터(CENIPA)가 항공기 사고 공통 조사를 요청했으나 러시아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 CENIPA가 공동 조사를 희망한 것은 지난 23일 추락한 프리고진의 전용기 ‘엠브라에르 레거시 600’ 항공기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가 만든 기체이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프리고진과 그의 참모 2

명, 경호원 4명 등이 목숨을 잃었다. CENIPA 관계자는 로이터에 “러시아 항공당국은 지금으로선 국제규정을 따르면서 항공기 사고 조사를 함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러시아 항공사고 조사 당국이 브라질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 의무는 없으나, 미국 등 서방이 사고의 배후로 크렘린궁을 지목한 상황에서 공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크렘린궁을 사고의 배후로 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프리고진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새롭게 그에 대해 평가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꽤 분명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 사고 당시 휴가 차 네바다주 타호 호수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자들과 문답에서 프리고진 사망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이 일은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된 일이었다”라며 “크렘린 궁은 그의 정책을 살해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바그너 전용기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해 러시아 국내 사고로 분류된다.

/ 노승만 기자

현재 미국에서는 최소 18개 주가 성소수자 관련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에는 미성년자 대상 젠더 확인 의료, 성적 성향 관련 학교 교과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사회적 관습이 캐나다와 다른 여행지를 가는 것이 편안한 여부를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밝혔다.

/ 신재일 기자

## 캐나다, 성소수자 자국민에 미국 여행 경보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LGBTQ) 자국민에 미국 여행 경보를 발령, 주의를 당부했다고 캐나다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여행 정보 안내를 통해 “미국 일부 주가 성소수자 관련 법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지 여행 시 성소수자가 캐나다와 달리 차

별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해당 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여행 목적지의 현지 법규를 미리 점검해 보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사회적 관습이 캐나다와 다른 여행지를 가는 것이 편안한 여부를 주의 깊게 고려하라”고 밝혔다.

[ 2020 부산세계박람회 워너브러더스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 WAVE

내 손안의 AI 친구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

# 정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 할인

## 평년보다 비싼 농축수산물·대중성 어종·제수용품 등 대상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 바다마

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와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활·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활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다음 달 21~27일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달 31일부터 소비자가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신민경 기자



## '획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논의 막바지

### 시행령 입법예고 초읽기

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각 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문체부는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홈페이지·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3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주관하는 TF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

/ 김경준 기자

## KT '김영섭호' 출범…“기업가치 제고에 최선”

### 5개월 수장공백 상태 마침표…“최고수준 인프라·기술력으로 지속가능 성장”

장기간 경영 공백을 이어온 재계 서열 12위 KT가 김영섭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대표 선임은 전체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김 대표는 선임 직후 주주들에게 "KT 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1959년생인 김 대표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LG 전신인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한 뒤 LG 계열사에만 40년 가까이 몸담아왔다.

업계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평가받으며, LG CNS 사장 재직 당시 조직 구조 효율화 및 체질 개선 작업에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선임 직후 주주들에게 "KT 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다. 앞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립 전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례로 대표이사 후보로 지명됐지만, 여권의 반대 속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행동에 나서면서 낙마했다.

구 전 대표가 사임한 3월 말 이후 5개 월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으며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등 경영 안정화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전임 경영진의 배임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



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직 안정화와 기업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중책을 떠안았다.

김 대표가 내정 이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외부 노출을 삼가며 업무 파악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머지않은 시점에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 송원기 기자



###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동원합니다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풀러스 이모티콘을 들려주세요!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우아 헤스팅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카드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풀러스 유독

## LIG넥스원, 한·사우디 드론로드쇼 참가…안티드론 소개

LIG넥스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나에프아랍국립보안과학대학교(NAUSS)에서 열린 '한·사우디아라비아 드론로드쇼'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소속인 NAUSS는 1978년 설립된 아랍 내무장관위원회 직속 학술기관이다. 범아랍권 국가의 범죄 퇴치 분야에서 아랍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 보안 전문기를 양성하는 곳이다.

지난 28일 시작된 드론로드쇼는 지난해 11월 NAUSS 측이 '사우디 NAUSS 국제 드론워크숍'에 한국 드론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해 성사됐다. 한국의 드론 산업 정책과 제도, 기술력이 소개됐다. 한국 드론대표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청, 경찰대학)과 LIG넥스원 등 기업, 대한드론축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LIG넥스원은 행사 2일차인 지난 29일 '한국의 드론 위협과 대응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상담회를 열어 현재 한국의 공공기관과 국가 주요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내무부와 미국 학계 관계자들, 인터폴, 중국 공안도 참가했다.

LIG넥스원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기관 등 잠재적 핵심 고객들과 네트워크 구축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쓰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의 안티드론 시스템 경쟁력을 중동 지역에 확실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 진성훈 기자

## 태백시, 폐광 대비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



강원 태백시는 2024년 6월로 예정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은 산림·목재를 리스터 사업을 기반으로 개발한다. 이번 모델 개발 사업에는 태백시, 강원연구원, 녹색탄소연구소가 협력한다.

에는 태백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원 12명이 참석해 브레인스토밍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 사업주, 시민, 정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지역 및 주민 중심의 일자리 모델 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어 11월 말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모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는 31일 개최한다. 이날 첫 회의

### 완도군, 9월부터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전남 최초’

전남 완도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내버스 무료 운행은 군수 공약 사항으로 전남 최초(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타 지자체의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와 차별화된다.

군내버스는 8개 업체가 버스 35대(68개 노선)를 운행하고 있다. 인구 4만6천여 명 중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다. 완도군은 군의회의 협조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우철 군수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병훈 기자

# 서울시 “추석 앞둔 9월 택배 분실·훼손 유의하세요”



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천 56건이며 9월에는 상담 건수가 전월보다 23%가량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이 52%로 가장 많았다.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과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운송물 가격은 분실·훼손·배송 지연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택배 관련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송원기 기자

## 의정부경전철 요금 10월에 또 오른다…최고수준 ‘1천700원으로’

### 개통이후 3차례 올려…내년 하반기 또 인상 가능성 있어

경기 의정부경전철의 잣은 요금 인상이 논란이다. 10월 7일 인상 예정인데 2012년 개통 이후 벌써 세 번째다. 한 시의원은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요금 중 별도 운임 300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기본 운임과 수익 보장 등을 위한 별도 운임으로 구분된다.

기본 운임은 경기도가, 별도 운임은 의정부시가 각각 결정한다.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2012년 7월 개통 당시 1천300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별도 운임을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12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기본 운임 1천50원과 별도 운임

250원으로 구분했고, 여기에 별도 운임 50원을 인상해 요금을 1천350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5년 6월 서울시가 철도 요금을 올리자 의정부경전철도 기본 운임 1천 250원과 별도 운임 100원으로 조정했으나 요금 총액은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에는 경전철 운임 수입 현실화 등을 이유로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별도 운임을 300원으로 올리면서 요금이 1천550원으로 올랐다.

또 올해 환승할인 관련 기관이 철도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기로 해 기본 운임만 150원 올라 의정부경전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1천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 폭은 다음 달 중순 경기도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결국 승객이 내는 의정부경전철 요금은 2012년 1천300원에서 2014년 1천350원, 2019년 1천55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조만간 1천7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강현주 기자



인천시가 운영 중인 영유아 전용 놀이공간

## 인천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 2자녀 가구도 공영주차장·시립체육시설 반값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군·구별로 다른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2자녀 이상’, ‘감면율 50%’로 통일된다.

지난해 4월 중구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3자녀 이상 가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아이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9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 중인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에도 10%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우선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새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시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시립문화시설 수강료 면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1만원) 면제, 시립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있다.

/ 황유선 기자

##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연내 국회 통과 목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란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란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K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준현 기자

## 대구치맥페스티벌 30일 개막…MZ세대 겨냥 야외클럽 테마

### 인공제설기 동원 겨울 정취 공간도…9월 3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서 개최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치맥의 성지에서 다시 새롭게 도약한다’는 슬로건으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강화했다.

MZ세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치맥 클럽, 눈 내리는 치맥 펍, 8090 감성포차, 에코프렌들리 스탠딩바, 별빛 치맥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메인 행사장인 두류공원 시민광장에 조성되는 프리미엄 치맥 클럽은 젊은 세대를 위한 야외 클럽 테마로 꾸며진다.

그라피티 아티스트 제이 플로우와 협업해 치맥페스티벌을 상징하는 30m 길이 대형 아트월을 제작했다. 축제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그라피티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눈 내리는 치맥 펍은 인공 제설기를 동원해 방문객들이 때 이른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지난해 배 규모인 1천88석으로 늘렸다.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맥주와 기념품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핀란드 대사관과 연계해 이색 글로벌 경기인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대만, 싱가포르, 일본 관광객 8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가 골목상권 회복과 활력 넘치는 도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진우성 기자

## 그때처럼 지금도 교보생명의 꿈은 계속됩니다

밥은 굶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만들었고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이

오늘날의 교보문고를 있게 했듯

교보생명이 걸어온 지난 65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꿈들과 함께하겠습니다



KYOBOTM 교보생명



# 팀 타율 최하위 한화의 고육지책 “지키는 야구로 전환”

## 차갑게 식은 타격으로 최근 6연패…수비로 연패 탈출 도전

최근 6연패로 순위가 9위까지 추락한 한화 이글스의 고민은 명확하다. 바로 허약한 공격력이다. 한화는 팀 타율 0.239로 이 부문 리그 9위 두산 베어스(0.255)보다 한참 뒤쳐진 꼴찌다. 그것도 2020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이번 시즌 한화는 프리에이전트(FA)로 1루수 채은성과 영입했고, 3루수 노시환은 리그 최우수선수(MVP)를 노려볼 만한 최정상급 야수로 성장했다.

이들의 활약에도 경기당 평균 득점(3.93)마저 리그 최하위라는 점은 한화 공격의 난맥상을 짐작하게 한다.

어떻게든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를 기용해왔던 한화 벤치는 최근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최원호 한화 감독은 2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득점력을 올리는 방식과 실점을 낮추는 방식 중에 실점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 이글스 18년만에 8연승 달성

이제까지는 종합적인 능력이 비슷한 경우 수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로 냈다면, 이제는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먼저 쓰겠다는 의미다.

최 감독은 “타격이 안 되는데 그것과 맞물려 수비 쪽에서도 실수가 잦았다. 우리 팀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낫다. 마운드

를 안정화해서 실점을 줄이는 게 승리하는데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감독의 말대로, 올해 한화의 수비는 나쁘지 않다. 팀 실책은 74개로 리그에서 가장 적고, 팀 포수 도루 저지율도 35.9%로 리그 2위다. KBO 기록 전문 웹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평균 대비 수비로 득점에 기여한 수치(WAA)는 2.47로 리그

전체 1위다. 물론 이러한 방향과 무관하게 라인업에 고정해야 할 선수도 있다.

핵심 내야수 채은성과 노시환, 그리고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김태연이다.

특히 수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김태연에 대해 최 감독은 “채은성과 노시환에 김태연까지는 팀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선수”라고 말했다.

김태연의 시즌 타율은 0.279이며, 훔런 4개와 22타점을 곁들여 OPS(출루율+장타율) 0.742를 달린다.

최 감독은 “김태연은 KBO 평균 수준의 타격 능력은 된다. 우리 팀 내에서 대체할 선수가 없으니 활용해야 한다”며 지명타자로 기용할 뜻을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타격이 좋은 선수가 먼저 나갔다가 경기 후반 바꿨다면, 이제는 수비가 좋은 선수가 나가서 팀이 앞서가면 그대로 기용하고, 뒤처지면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타력이 좋은 선수를 대타로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희성 기자



훈련하는 신유빈

## 아시아탁구 앞둔 신유빈

### “자신감, 경기에 잘 녹여볼게요”

“자신감을 경기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어진다. 신유빈에게는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종합대회다.

올해 국제무대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탁구 팬들의 기대감을 확 끌어 올린 신유빈(대한항공)이 2023 평창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신유빈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

### 장우진 “올림픽 티켓 걸려…전장에 나가는 느낌으로”

신유빈은 지난 5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전지희(미래에셋증권)와 함께 한국 선수로는 36년 만에 여자 복식 결승에 오르더니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후에도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무대에서 3차례나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현재 신유빈은 국제탁구연맹(ITTF) 여자 단식 랭킹 9위에 올라가 있다.

여자 복식에서는 전지희와 함께 1위, 혼합복식에서는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함께 3위에 있다.

신유빈은 30일 대한탁구협회를 통해 “랭킹은 딱히 의식하지 않는다. 그동안 연습해온 기술을 경기 중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내용으로 경기를 풀어갈지 예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국 대회에 많이 나가 체력을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과정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가 끝나면 2022 항

는 전지희는 “유빈이와 복식에서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을 안다”면서 “부담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계속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훈은 남자 단체전과 단식, 신유빈과 나설 혼합 복식, 장우진과 짝을 이뤄 도전하는 남자 단식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겠다고 큰소리쳤다.

임종훈은 “복식에서는 파트너를 믿고 뛰겠다. 유빈이는 상대 남자 선수 공도 잘 받아준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자 단식 ‘에이스’ 장우진은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는 느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강원 평창동에서 열리는 평창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남자 23개국 95명, 여자 19개국 86명의 아시아 탁구 강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단·복식,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7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 남정윤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안세영 선수에

### “대한민국 영웅” 축전



개인선수권대회 우승한 안세영 선수

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전남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안세영 선수는 어릴 적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하며 소질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시작했다.

광주 풍암초,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하고, 현재 삼성생명 소속이다.

안세영은 최근 멘마크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김호민 기자

## 프로농구 KCC, 연고지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



최형길 KCC 단장(오른쪽)

프로농구 KCC가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한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다.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스 프로농구 단을 인수,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바꾼 KCC는 이로써 22년 만에 전주를 떠나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연고지 변경 최근 사례는 2021년 6월 kt가 부산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고 그해 9월에는 한국가스

/ 박지혁 기자

#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미래같이 뉴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바다가 좋아하는 LG의 클린테크

내일의 바다는 오늘보다 더 맑고 투명하도록  
LG의 클린테크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 바다를 살리기 위한 플라스틱의 변화

동물의 가죽과 나무를 대신하던 플라스틱을 이제는 지구의 바다를 위해 다시 생각해 봄 때가 되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클린테크를 활용하여 폐식용유, 시험성 원료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부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육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되기도

한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단 3달 만에 하이 모이지 편은 절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좋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버린 걸 다시 살리고 원전히 버려지도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테크 기술이 앞으로의 지구를 위해 더 많이 판생할 예정이다.

###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

####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70% 줄이는 세탁 케어 코스도 등장

최근 각종 연구 조사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물 속에 대개는 물론 연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면서 사용 규제와 제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는 '세탁 케어 코스'이다. 세탁 케어 코스는 세탁 과정에서 물을 보존·활용·재활용하는 기술로, 물을 위한 세탁 케어 코스는 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세탁에서 세탁기 사용 시 세탁 절차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최대

70% 줄인 '미세플라스틱 케어 코스'가 소개되며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바다에 탄소 흡수 해초 심는다

### 축구장 14개 크기 '잘피' 군락지 형성 계획

바닷속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잘피' 군락지는 축구장 14개 크기인 10㏊ 규모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잘피는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는 해초류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바닷속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주목받고 있다. 10㏊ 규모 잘피 서식지는 잘피가 산아진 빠른 속도로 자동차 2800대가 배낸 배출하는 탄소량(약 5000t)을 흡수할 수 있다. 산림보다 흡수량이 30배 이상 많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꼽은 3대 블루카본 중 하나이다.

최근 국내 연안의 잘피 군락지는 지구 온난화와 해양 쓰레기 등으로 생존에 위협받고 있어 보육과 생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잘피 서식지가 폐원되면 탄소 흡수 외에도 인근 생물 개체 수가 25%, 경유는 15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만큼 인구 이촌과의 상생도 가능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핚 클린테크



### 바다를 살리는 LG의 클린테크

클린테크는 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폐기물에서 에너지나 일로 등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LG는 전세계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지식을 갖고 탄소중립과 재활용 평화 순수재개 구축, 탄소 저감 등을 위한 플랜테크 사업도 기록 육성 중심으로 각 계열사 클린테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역량 확보에 나섰다.

미아오 소재를 활용한 신환경 플라스틱, 폐관, 폐기물 재활용 기술, 태양광 -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강화화 나사 계획이 등장해 미래 재활용 평화를 위한 기업의 청사진이 마련된다. 특히 최근 신재생 기반 시장에서 선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재활용 리모컨'이 있다.



전환경 리모컨